

先 현종·後 현수, 한화전 등판 KIA 5강 이끈다



양현종



오늘 더블헤더, 1·2차전 선발 운명의 승부
양, 4일 휴식 후 등판... 팀 위해 선발 자처
윌리엄스 감독 "매 경기 집중...김, 준비 끝났다"

'호랑이 군단' 운명의 승부를 위해 양현종과 김현수가 나선다.
KIA타이거즈는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한화이글스와 더블헤더 경기를 갖는다. 8월 30일 광주 KT 위즈전 이후 시즌 두 번째 더블헤더다.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과 김현수를 각각 1, 2차전 선발로 내세워 두 번째 더블헤더를 풀어간다.
'2승'을 놓고 벌이는 승부지만 순위 싸움 중인 KIA에는 2승 이상이 걸려있는 경기다.
KIA는 지난주 키움전 스윙으로 단독 5위까지 치고 올랐다가 두산 베어스에 싹쓸이 3연패를 당하며 6위로 다시 내려앉았다.
'가을 잔치'를 꿈꾸는 KIA로서는 22경기 밖에 남지 않은 만큼 1승의 가치는 더 크다.
갈 길 바쁜 KIA는 브룩스 이탈 속 임기영, 이민우의 부진이 겹치면서 '마운드 고

민'에도 빠져있다.
7연전을 펼쳐야 하는 경기, 더블헤더의 결과에 따라 남은 4경기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7일은 KIA 5강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6일 취재진을 만나 "오늘 게임과 내일 더블헤더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풀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양현종과 김현수의 등판을 예고했다.
양현종은 앞선 등판과 마찬가지로 4일 휴식 후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이 첫 번째 경기에 나가기를 원한다"며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한다. 양현종의 몸상태는 좋다"고 양현종의 등판을 이야기했다.
김현수에 대해서도 "준비가 끝났다"고 언급했다.

김현수는 앞선 1일 키움전에서 데뷔 첫 선발 등판에 나서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팀은 김현수의 '깜짝 호투'에 브리검, 요키시를 앞세웠던 키움에 스윙승을 완성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김현수가 2차전 선발로 나선다. 앞선 등판 때 좋았다. 준비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경기에서 김현수의 커브가 좋았다. 감각이라든지 느낌이 좋다. 앞선 경기에서 직구 로케이션이 좋았고 낮게 낮게 들어 가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며 "지난 두 경기를 통해 김현수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내일도 그대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김현수의 호투를 기대했다.
어려운 5강 싸움을 전개해야 하는 윌리엄스 감독은 올 시즌 내내 강조했던 '오늘'도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18일 이후 재경기 일정에서 홈 스케줄이 많은 걸 이점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겠다"면서도 "오늘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김현수

KIA, 한글날 기념 8일까지 손글씨 공모

KIA 타이거즈가 오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손글씨 공모전을 연다.
누구나 KIA 타이거즈 카카오톡 채널 대화창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8일까지 코로

나 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손글씨로 적어 보내면 된다.
KIA는 5명을 선정해 JBL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준다.

또 당선작은 경기 당일 전광판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선수단은 이날 한글날 기념 패치를 모자에 부착하고 경기에 나선다.
기념 패치에는 세종대왕으로 분한 호걸이와 함께 구단 이름이 한글로 적혀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지만=베이비루스” 계릿 콜 상대 또 홈런

ALDS 1차전 선발... 고의사구도 얻어

코리안 메이저리거 중 유일하게 2020시즌 디비전시리즈를 치르는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이 1차전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투수' 계릿 콜(30·뉴욕 양키스)을 저격했다.
최지만은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뉴욕 양키스와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3승제) 1차전에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투런 홈런을 포함, 3타수 1안타 2타점 1볼넷으로 활약했다.
탬파베이가 3-9로 재역전패했지만, 콜을 상대하는 최지만의 모습은 ALDS 1차전의 주요 장면으로 꼽힐만하다.
1-2로 뒤진 4회말 무사 1루, 최지만은 콜의 시속 154km(95.8마일) 직구를 받아쳤다. 타구는 시속 175km 속도로 131m를 날아가 중앙 펜스를 넘어갔다.
최지만이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을 포함해 콜에게 친 4번째 홈런이다.
최지만은 정규시즌에서 콜에게 개인 통산 12타수 8안타(타율 0.667), 3홈런, 8타점으로 매우 강했다.
포스트시즌에서는 지난해까지 5타수 1안타로 콜에게 막혔지만, 탬파베이는 '정규시즌 기록'을 더 믿었다. 최지만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대타로만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그러나 콜이 선발로 예고된 ALDS 1차전에서는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고, 역대 투수 최고액인 9년간 3억2400만 달러를 받고 양키스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한 콜을 공략해 홈런을 쳤다.
최지만은 1회 첫 타석에서는 콜의 시속 158km 직구에 막혀 3루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쳤고, 5회 2사 1, 3루에서는 고의사구를 얻었다.
콜은 5회 최지만에게 볼 2개를 던진 뒤, 고의사구를 택했다. 콜이 포스트시즌에서 고의사구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규시즌을 포함하면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7년 9월 13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후 3년 만에 고의사구를 허용했다.
1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고의사구를 택할 만큼 콜에게 최지만은 결코 쉬운 상대였다.
경기 수로 조정하기 전 콜의 올해 연봉은 3600만 달러, 최지만의 연봉은 85만 달러다.
최지만은 이날 개인 통산 포스트시즌 두 번째 홈런을 쳤다. 그는 2019년 ALDS 3차전에서 휴스턴 우완 잭 그레인키를 상대로 우월 솔로 아치를 그리며 포스트시즌 생애 첫 홈런과 타점을 올렸다.
/연합뉴스



“나는 콜 킬러”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오른쪽)이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미국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AL) 디비전시리즈(DS) 1차전에서 4회말 2점 홈런을 날린 뒤 동료 윌리엄스 감독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vs 김학범호

9·12일 친선경기... 엄원상·나상호·김영빈 등 출전

K리그1이 잠시 숨을 고르면서 대표팀에 눈길이 쏠린다.
오는 9일과 12일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과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친선경기를 펼친다.
K리그에서 치열하게 대결하던 선수들이 잠시 순위 전쟁을 멈추고, '사령탑' 눈도장 찍기에 나선다.
코로나19 여파로 기회를 얻은 선수들이 있다. 해외파 없이 국내파로만 팀을 꾸리면서 그동안 대표팀 부름을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기회를 얻었다.
광주팬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있다.
K리그에서 돌아와 성남으로 이적한 나상호가 변함없이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고, 광주대를 졸업하고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던 김영빈(강원)도 처음 국가대표 발탁 영예를 안았다.
김영빈은 2014년 광주에서 프로에 데뷔, 상주에서 군복무를 마친 뒤 올 시즌 강원으로 이적했다.
광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 1경기를 제외하고 리그 전 경기에 나서 강원 김병수 감독의 깊은 신임을 받고 있다.
수비라인을 높게 유지하고 물어치는 축구를 하는 강원엔 최적화된 자원으로 수비는 물론 공격 가담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김영빈은 대표팀 합류하기 전 성남과의 경기에서 동점골도 장식했다. 후반 9분 나상호에게 선제골을 내준 강원은 후반 35분 나온 김영빈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임채민의 골을 더해 2-1 역전승을 거뒀다.

올림픽대표팀에서는 광주 엄원상과 포항 송민규의 'K리그 영플레이어상' 장외 경전이 펼쳐진다.
광주의 '엄살라' 엄원상은 이번에도 김학범 감독의 골업을 받아 파주로 갔다.
지난해 광주에 입단한 엄원상은 K리그 데뷔전인 올 시즌 7득점 2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주축 선수로 발돋움했다.
강제과의 승부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광주의 사상 첫 파이널 A 진출을 이끈 주역이 됐다.
폭발적인 스피드 등 타고난 재능을 바탕으로 영리하게 공간을 창출하면서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엄원상과 '영플레이어상' 강력 후보로 꼽히는 송민규는 처음 대표팀에 합류했다.
데뷔 첫해인 2018시즌 R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지난해 이어 올해 포함 주요 자원으로 거듭났다. 3년 차인 올 시즌에는 10득점 5도움을 올렸다.
앞선 광주와 포항의 맞대결에서도 두 사람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엄원상은 2-2로 맞선 후반 23분 극적인 골을 기록했고, 송민규는 골 대신 2개의 도움을 올리며 5-3 재역전승에 숨은 조연이 됐다.
두 사람은 동리야자 경쟁자로 친선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광주 수비수 아슬마토프는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에 소집됐다.
아슬마토프는 오는 8일 오후 10시(이하 한국 시각) 이란, 12일 오전 7시 아랍에미리트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네덜란드 축구 전설 아들, 황희찬 경쟁자로 (클라위버트)

라이프치히, 1년간 임대 영입

독일 프로축구로 활동 무대를 옮긴 공격수 황희찬(24)의 경쟁자가 늘었다.
라이프치히는 6일(한국시간) "AS로마(이탈리아)에서 왕어 유스틴 클라위버트(21)를 1년간 임대 이적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유스틴은 네덜란드 축구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였던 파트릭 클라위버트의 아들이다.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2경기를 뒀 유스틴 클라위버트는 자국 명문클럽 아약스의 유소년팀 출신으로, 2017년 1월 아약스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19세였던 2018년 여름 AS로마로 이적했다. 로마와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다. 로마에서는 총 68경기 출전해 9골 10도움을 기록했다.
라이프치히의 울려름 티모 베르너를 첼시(잉글랜드)로 떠나보낸 뒤 공격진 보강에 공을 들였다.
/연합뉴스